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내일의 나를 위한 선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September 22, 2023 Vol. 883

"성경 필사로, 다음 세대에 성령 임하길 기대해"

세상 미디어에 빼앗긴 청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 되길

남가주 전역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성경필사 장학생으로 선정된 50명의 학생들에게 필사노트가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편으로 노트를 받거나 직접 기독일보 신문사로 방문하여 픽업해 갔다.

이번 필사 장학회에 선정된 50명의 장학생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50여개 교회로부터 선정했다.

장학생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써서 올 년말까지 필사노트를 본사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필사하면서 느낀 소감문을 작성해 보내면, 심사를 거쳐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트, 3등 에어팟을 특별 상품으로 수여한다.

장학금 전달식은 내년 1월 중순에 갖게 될 예정이며 이날 필사노트 전시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학 사업을 주최하는 본지 대표 이인규 목사는 "세상 미디어에 우리 청년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는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잘 써서 모두가 장학금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서길 바란다"면서 "부모님,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필사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 장학금이 다 마련된 것이 아니다. 장학금을 후원하실 후원자분들을 찾고 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쓰고 기도하기에 전념하게 될 귀한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일에 동참을 원하는 분들은 기독일보 전화(213-739-0403, 213-434-1170) 나 이메일(chdailyreporter@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성경필사 장학생 지원들에게 필사 노트가 제공되었다. ⓒ기독일보

오늘날 교회가 외면받는 이유, '침묵하는' 교회 때문

美 잭 힙스 목사, 보수 진영 모임서 연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갈보리 채플 치노 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를 이끌고 있는 잭 힙스 목사가 보수 집회에서 "미국이 '후기 기독교'(post-christian) 국가가 된 것은 '침묵하는' 교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잭 힙스 목사(Jack Hibbs·64)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옴니 쇼럼(Omni Shoreham) 호텔에서 열린 가족연구위원회 주최 '기도, 투표, 지지 지도자회의'(Pray Vote Stand Summit)에서 "미국에서 교회가 '소외'되고 '제외'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은 필수적"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신앙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백 명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모여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연설을 들었다.

힙스 목사는 "우리는 이 교회 가족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보자. 자, 우리에 대한 비난의 대부분 사실이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금과 빛이 되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이어 "난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지속적으로 낙인이 찍혀 왔다. 그러나 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괴롭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history)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다.

힙스 목사는 "난 예수님이 오늘 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해도 내게 손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를 올바른 손에 맡길 것이다. 당신은 '그렇지만 목사님, 그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렇다. 특히 공직에 출마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이미 공직에 출마한 많은 목회자들을 알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선출됐다. 하나님의 복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제도를 세우셨다. 이스라엘도 교회도 그 중 하나다. 결혼도 그 중 하나이며 가족도 그렇다. 잘 들어 보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우셨다. 알고 있었나? 그분이 정치를 발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발명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부에 개입하시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예를 든 그는 "캘리포니아가 공격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있다. 마약과 노숙자가 도처에 널려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였지만, 변함없는 민주당 지도력 아래 있었다. 경건하지 않으며, 낙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말했다. 힙스 목사는 33년 동안 자신의 교회에서 목회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성을 설교했을 때 반발과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 3면으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스페셜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Ioniq 6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Fe SE
Lease Special
2023 IONIQ 5 SEL
$299 /MO + TAX
10,000 mile/year For 24 Months
$6,995 due at lease signing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KAPC 73회 정기노회 및 목사 임직식 열려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서남노회 제 73회 정기노회가 19일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자발적 순종과 헌신으로, 사도 바울 같은 목회의 주인공 되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서남노회 제 73회 정기노회가 지난 19일 화 오전 11시에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김충한 목사(서기) 인도로 열린 1부 예배에서 김성규 목사(회의록 서기)가 대표로 기도한 후 박규성 목사(노회장)가 빌립보서 1:1-2절을 본문으로 '둘로스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목회했다"면서 "주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사도 바울 같은 목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민종기 목사(회계)의 인도로 성찬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박규성 노회장의 인도로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진행된 대흥장로교회(김정훈 목사)가 청원한 '장로 고시 청원'(홍경화, 원종철)와 '목사 고시 청원'(Isaac Im), 세리토스장로교회가 청원한 목사 가입 청원(최용준, 윤여창)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에 열린 목사임직예배에서는 임하일(Isaac Im)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임직예배는 김충한 목사의 인도로 김정훈 목사(대흥장로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4:1-2절을 본문으로 박규성 목사가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안수식은 박규성 노회장의 인도로 서약, 안수, 선포, 회원호명, 노회규칙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민종기 목사의 권면과 김성규 목사의 축사에 이어 Isacc Im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신발 자국

어느 분들 자국이니

많은 골퍼들이 밟아왔으니

기억할 수 없네요

바로 내 옆엔 잔디밭

신발도 더럽히지 않을텐데

생각이 짧아서 그러나요

너 위에 잔디 부스러기들은 뭐지

얘야

생각 좀 해보자

-글.사진: 최순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장학생 모집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지난 2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19차 9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에서는 지난 8월 OC교협을 중심으로 한 OC교계 단체가 연합으로 추진한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중 한 명인 박현동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보이스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로, 개척한 지 얼마 되지않은 개척교회 목회자다. 박 목사는 "모든 종교에서는 복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조건과 보상으로서의 복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말하고 있다. 화평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죄로 인해 화평이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다른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Sue Kim 이사의 대표기도, 박현동 목사의 설교, 중보기도 인도로 이어졌다. 특별히 그동안 건강 때문에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영세 장로가 참석해 중보기도 마침기도를 맡았다. 이후 10월과 11월에 장학생을 모집해 12월에 전달식을 갖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OC 인근지역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신앙을 다져가며 교계와 연합활동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고 건강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평신도라면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남가주한인교회 제 22 회 창작 성가제

9월 24일(주일)
애나하임 연합 감리교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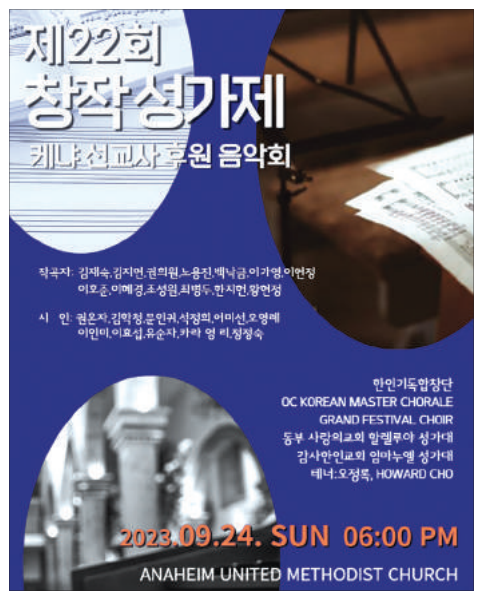
'제22회 창작 성가제'가 오는 9월 24일 주일 오후 6시, 애나하임에 있는 Anaheim United Methodist Church (애나하임 연합 감리교회) 1000 S.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에서 열린다.

이 성가제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다. 이 협회는 남가주에 있는 한인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1971년에 창단된 비영리 단체이며, '창작 성가제'는 남가주에 있는 시인들과 작곡가들 또한 초청된 합창단과 찬양대가 새롭게 탄생된 찬양곡을 초연하는 음악회이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와 함께 협력 하시던 시인이 케냐 선교사로 가셔서 '케냐 선교 후원 음악회'로 12곡의 합창곡과 2곡의 독창곡으로 준비했다.

김민선 기자

문의: 760-623-9380 | 310-381-9835



2024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28,0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2,876,200입니다.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금 :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3년 12월 29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4년 1월 15일(월)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 사무실) www.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통해 다민족 소그룹 기도팀 활성화

2023 다민족 연합기도회
10월 1일(주일) 오후 4시
"미국을 용서하고 고치소서"

2011년 이래 계속해서 개최되어 온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2023년에도 열린다.

오는 10월 1일(주일) 오후 4시 은혜 한인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우선 1년에 한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다민족 연합 기도 운동을 펼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1년 내내 건강한 기도 사역팀과 기도 그룹과 동역하며 준비해 왔다. 올해 다민족 연합 기도 대회 참석자는 적어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의 연합 기도회다.

둘째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도모하는 기도 소그룹 만들기 운동(Prayer Cell Campaign)에 박차를 가하는 기도대회다. 줌 미팅과 준비 기도회, 리허설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되는 프레이어 셀 캠페인은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타 민족 교회와 기도 사역팀에서 기도 그룹을 만들고 있다.

한편 강순영 목사와 강태광 목사는 한인교회안에서 중보기도팀을 발굴하여 미국과 청교도의 회복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프레이어 셀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다민족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와 14일에 한인 중심의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를 마친 이들 목사는 본격적으로 참가 교회와 기도팀을 독려하며 기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한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가 지난 14일 개최됐다.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JAMA, OC교협, 미주성시화운동본주, 은혜한인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동욱 기자

➔1면 기사 "오늘날 교회가 외면받는…' 에 이어서

그는 "결혼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낙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성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인간으로서나 미국인으로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둘 다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나라는 죄의 나라요, 우리도 죄인이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후기 기독교 국가이고, 그 자리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우리는 침묵함으로써 여기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힙스 목사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단이 포기하면 회중도 포기한다. 회중이 포기하면 지역사회도 포기한다. 그러면 그 공허함은 악으로 채워진다. 그렇다면 왜 캘리포니아에는 우리의 신앙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새로운 다수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지사는 '모든 마리화나 약국, 스트립 클럽, 모든 바와 주류 판매점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는 폐쇄했다"고 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고조되는 시기에 주의 폐쇄 명령과 지정을 언급하며 홈디포와 이와 유사한 다른 장소들은 폐쇄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교회는 초월적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사신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일터에서 예배적 삶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

SEED 선교회와 Only In Love 선교회 주최, ANC온누리교회와 미주복음방송 후원으로 목회자 대상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ANC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NOW Mission 대표 송동호 목사가 일삶 선교학교 소개 및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송동호 목사는 지금의 선교사의 현실, 팬더믹 이후에 선교사들이 처한 현황을 소개했다. 송 목사는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 후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느 선교사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스스로 몰리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라는 느낌의 고백을 토로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면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은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스스로 돕지 않으면 주저앉는다는 위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는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족과 친지의 돈을 끌어와 실패하고 빚쟁이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강의할 때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망하기 쉽다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송 목사는 "선교계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 자비량 선교,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선교사의 후원 약화에 의해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자립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사실 네비게이토나, UBF 등의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립선교를 해 와서, 그들이 주목을 받으면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이 제한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NOW Mission 대표 송동호 목사가 초청되어 일삶 선교학교 소개 및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기독일보

그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지역,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셔널(missional)'이란 이야기를 들을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교'라는 인식은 그 다음이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면,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일터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다는 생각을 하니 기쁨이 왔다"고 했다.

송동호 목사는 "선교사가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곧 선교라는 개념으로 안믿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면서 "세속에서의 성자 운동, 일터 속에서의 제자화 등의 표현을 통해 BAMer 이란 이름을 쓰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낮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교회가 방향을 잡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목사는 나우미션에서 주관하는 〈일삶선교학교〉를 소개하며, "홀로 서기 위한 삶과 함께 서기 위한 삶 등 두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총체적 선교훈련이다. 선교적 제자도를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공동체로 들어오고 주께로 인도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21일(목) 미주복음방송 본사 공개홀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목양 관계 안에서 영혼의 섬김 없다면… 중요한 것 놓쳐”

교회 울타리 넘어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 섬기고 연합해야 ‘20대 청년의 마음을 움직인 한 마디, ‘크고 작고에 관계 없이 진실한 목회자 되는 것’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 그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다”며, “그것은 어떤 탁월한 소수의 목회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인프라 때문도 아니다. 영혼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기독일보

LA코리아타운에 어느 정도 적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 바로 피코 대로와 사우스 노턴 애비뉴에 위치한 한길교회이다. 이민교회 안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세계로교회와 헤브론교회가 함께 통합해 ‘한길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한 이 교회는 말씀의 바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해 온 교회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길교회는 위임예배를 드리며 공식적으로 고광선 목사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출항을 알렸다. 고광선 목사는 한길교회를 ‘말씀의 토대가 잘 세워진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한인교회 안에 나타나는 어려움도 갖고 있던 교회’라고 소개했다.

또한 한길교회 사역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교회 생태계의 회복’이다. 한길교회에서는 중보 기도 헌신자 60여 명이 기도로 섬기고 있는데, 이들의 기도제목은 교회의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교회가 다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데까지 이른다. “60여 분의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한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의 생태계이다. 한 교회가 지역 교회와 사회의 도움 없이 한 성도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게 쉽지 않다. 지역 교회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탄절 전날인 23일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교회들과 함께 메시아 연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길교회는 피스메이커 사역의 일환으로 〈다리놓는사람들〉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길교회

무엇보다 한길교회는 강해 설교, 말씀 중심 사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교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사진으로 이승구 교수, 김연수 선교사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과 줌으로 진행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없이 지적인 만족에 머무는 신앙을 경계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영혼을 양육하고, 목양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경험이 없으면 신앙에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한길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성도분들이 많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배 안에서 설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자족하는 정도에 머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한길교회가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그 복음을 나눈 한 영혼을 잘 양육하고,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규칙과 규율로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성도가 복음을 살아내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이 삶을 바꿔 낸다고 생각한다. 그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켰듯, 누군가를 변화시켜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삶의 변화는 따라온다.”

해방 이후 남한에 설립된 남산장로교 신학교(좌경화 되기 이전의 조선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할아버지, ‘70년대 한국 엑스플로(Explo)집회’ 훈련 교재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증조할머니, 그렇게 4대째 신앙을 해왔음에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픔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텄고 그러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끌었다.

말씀을 묵상하며 첫사랑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한 그는, 이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대 무렵, 40대 초반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 가시는 고귀한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목회자의 소명을 확신했다.

“사실은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었다. ‘평생 이 일만 해도 행복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할 때, 철원 부대에 부임하신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20대 초반의 저에게 말씀하셨다. ‘광선 형제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는데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진실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젊은 목회자의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20대 초반 그의 내면에는 ‘그래도 큰 사역을 하고 싶다’는 내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그런데 ‘진실한 목회자’라는 그 말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 한마디는 세월을 가로질러, 그의 사역을 관통하고 있었으며, 그가 나눈 모든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길러지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다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 어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은혜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다.”

고 목사는 얼마 전 어르신 한 분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묵상했다. 이민 생활 내내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어르신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목격했다. 그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민 2세, 3세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 통로는 교회”라고 말한다.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을 밀어낸다.”

그는 한국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쉬웠다면, 이민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진정성이 전해지기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전해지면,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깊게 나눈다고 덧붙였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다. 그것은 어떤 탁월한 소수의 목회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인프라 때문도 아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다. 좀 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제가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길교회도 여타의 이민교회와 마찬가지로 세대와 성향에 따른 갈등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고 목사는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여긴다.

“선배 장로들께서 화평한 교회로 바뀌어 가도록 기도하면서 애쓰고 계시다. 우리 교회 내 세대와 분파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면, 한길교회가 이민교회 안에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길교회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다.” 주디 한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품는
다음세대 신앙계승 프로젝트 설명회 및 스마트 미디어 세미나
참가신청 마감일
9월 29일(금) 40명 선착순 마감
2023. 10. 2.(Mon) 10:00am~4:00pm
Double Tree Hilton Buena Park / Sierra 세미나실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대상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있는
담임 목회자,
예배 담당 교역자
등록기간
9.11(월) - 29(금)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및 문의
nci@gm.edu
(한철주 목사)
특전
점심식사 제공,
GMU기념품 증정,
미디어 기자재 증정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상세내용
9:30 - 10:00	접수	
10:00 - 11:00	개회	프로젝트 설명회, Q&A (주제 : 다음세대를 품는 예배)
11:00 - 12:00	모임	그룹 인터뷰
12:00 - 13:00	식사	
13:00 - 14:30	강연1	셀폰을 이용한 촬영법 (강사 : 박봉성 PD / 전 CTS America 제작국장)
14:30 - 16:00	강연2	셀폰을 이용한 편집법 (강사 : 이율희 PD / 전 CTS PD)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Center IPA MEDICAL GROUP

2013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작품상"
2014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대상" 인기상, 특별상 등 전 부문 석권
2015년 대한민국국회대상 "올해의 연극상"
15년간 전국 60여개 도시 1,800여회 공연 100만 관객 관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명품연극 특별공연!

이 세상 모든 아들딸들의 참회록,

돌치기

엄마,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술감독 임하리

작/연출 김용을

총괄 프로듀서 이광진

프로듀서 석송 대니 석 이진영 유한수 최순구 제니 리

출연 김진태 김계선 이효윤 안재완 안수현

관람권(Ticket) S석 $80.00 A석 $50.00

2023.10.27(금) 오후 6시 윌셔이벨극장 Wilshire Ebell Theatre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시니어분들께 **티켓을 선물**해 드립니다!

신청 문의 : **(714) 800-3168** 전화

* 문의는 평일 오전 8:30 ~ 오후 17:30 동안 가능합니다.

주최 Center IPA MEDICAL GROUP SBS International 주관 SINCE 1988 문화기획 에이콤 ART COMMUNICATION

예장 합동, 정년 연장 올해도 부결… “후배들 ‘길막’ 말자”

합동측의 단골 이슈인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은 올해도 부결됐다.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진행 중인 예장 합동 제108회기 총회 넷째 날 오전 회무에서 총대들은 8개 노회에서 헌의한 ‘목사·장로의 정년을 만 75세(기존 만 70세)로 연장하자’는 건을 두고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다.

찬성 측은 신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목회자 수급의 어려워지고, 특히 농어촌 교회와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 목사·장로의 은퇴로 ‘폐당회’가 속출할 것이 예상되며, 미국·영국에는 정년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반대 측은 정년 연장이 교회의 고령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기득권 유지로 악용돼 오히려 교회 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경일노회 이철우 목사는 “현재 서울에만 무임목사가 1,800여 명이고, 총신대 발표처럼 2035년이 되면 목사들이 은퇴하지 않고 신대원생들이 졸업해도 목회자 부족으로 교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원로목사·장로 추대는 헌법대로 만 70세 전에 결정하고, 만 70세가 지나면 원로목사·장로가 될 수 없고 공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회가 원할 경우 만 70세가 됐을 때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허락 하에 75세까지 ‘설교권’만 주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대구노회 김경환 장로는 “정년 연장 문제로 성도 간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교회가 젊어져야 하는데 점점 노령인구들만 교회를 차지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며 현행대로 하자고 했다.

한남노회 이병철 목사는 “통계청에 의하면 급속한 고령화로 3, 40년 후에는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 된다. 1992년 우리가 번역한 미국 (장로교) 헌법에는 애초에 정년제가 없었고, 지금도 분쟁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정년 연장에 힘을 실었다.

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18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한 총대가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하지만 대구노회 박창식 목사는 “우리 총대들 대다수는 베이비붐 세대다. 4, 50대 후배들은 우리 뒤에 줄 서 있다. 이들 중 80%는 담임목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며 부목사로 늙어 죽을 판”이라며 “우리 세대는 70세에 조용히 은퇴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후배들에게 과감하게 길을 열어 주자”고 주장해 총대들의 호응을 얻었다.

토론 끝에 거수로 가부를 물었고, 총대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가결했다. **송경호 기자**

WPC LA중앙노회 제7회 정기회 개최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7회 가을 정기회 개최.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세계예수교장로회(WPC) LA 중앙노회 제7회 정기회가 9월 19일(화) 남가주 하나교회(담임 노명구 목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노회장 김정호 목사(조이풀교회 담임)가 “모이기에 힘쓰는 노회”(히 10:24-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신관호 목사(생명의 빛 교회)가 성찬 예식을 진행한 후 노회장 김정호 목사(조이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회무를 진행하였다.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조윤선 씨에게 합격증을 전달하였다.

한편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페트라대학교(www.petrauniversity.org)는 B.Th, M.Div, D.Min 과정이 있으며 모든 과정의 유학비자(F-1)가 가능하다.

문의 213-210-3877(총장 김정호 박사)

시니어센터 제9대 이사장취임식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하 시니어센터)는 9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시니어센터 2층 강당 및 다울정에서 신영신 제9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이날 다울정 오픈행사와 2023추석 큰 잔치도 함께 진행된다. 사전 배포 초대권을 지참한 300명에게 송편과 한국의 잔치 음식과 쌀(15 파운드), 농심 누들샐러드가 제공된다.

이날 행사는 시니어센터 장구반〈희망의 북소리〉로 시작, 한국무용, 피아노, 하모니카, K-Town 댄스 학생들의 연주와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7~80대로 이뤄진 연극반(지도 김유연교수)이 시니어연극 〈아가씨와 건달들〉을 공연하며, 91세 할머니를 포함해 노인 다섯 분의 피아노 연주와 미술반(지도 양민숙교수)의 특별전시회도 있다. **시니어센터 제공**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여성 ‘설교권’, 하루 만에 뒤집혀

‘안수 허용됐다’ 는 식으로 나와 파장, 긴급히 관계자 모여 대화하고 합의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역자에게도 ‘설교권’을 주기로 해 관심을 모은 예장 합동의 결의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

합동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108회 총회 넷째 날인 21일 오후 회무에서 전날 결의한 ‘여성 사역자의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허락의 건’과 ‘여성사역자지위향상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의 건’을 취소하고 대신 ‘여성사역자 TFT’를 구성해 한 회기 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을 연구하기로 했다.

신학부 위원인 대구노회 임종구 목사는 “어제 (이하 지위향상위) 결의 이후 우리 결의정신과 관계 없이 예장 합동이 이미 안수를 허용했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갔고, 심지어 신대원 여학생들은 ‘강도사 고시 치고 다음에 목사 고시까지 치르는 길이 열렸다’ 이미 그렇게 나와서 결의에 파장이 있어, 오전 회무가 끝나고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지위향상위 관계자가 모여 한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 대표 발언자로 나왔다”고 했다.

임 목사는 “‘여성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교단의 정체성과 헌법, 성경해석에 의해 변개할 수 없다”며 “목회자 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목사 안수로 가게 된다. 가령 강도사 고시는 일종의 자격 시험인데 만약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 면허를 주지 않으면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생긴다. 강도사 고시를 공고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단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지위향상위에서도 충분이 인식하고 모두가 공감해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위향상’이라는 건 여성 사역자들을 마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목사는 “결론적으로 지위향상위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과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에 대해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를 허용키로 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선 그간 이름으로 불린 지위향상위의 이름 대신 ‘여성사역자 TFT’라는 특별위원회 조직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구성해 다음회기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분들(여성 사역자들)의 마음에 상실감이 있으니 신대원을 졸업한 우수 여자 원우들에게 교육사, 신학사, 목양사, 신학교육사라던가 하는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는 직위를 만들고 부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당회에서 허락하면 강의나 설교도 당회의 지도하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로 했다”며 동의안을 냈고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달라. 이곳에 총신대 박성규 총장님도 계신데, M.Div.를 지원하는 여학우들이 안수 받지 않고 평생전도사 만족하겠냐(고 물었을 때) ‘아멘’이 나오도록,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경호 기자

Biblely

미리 준비하는 2024년,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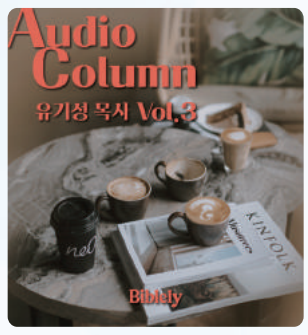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통독하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칼럼 Vol.3



유기성
이 앨범은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들을 모아
보이셀라의 AI 음성합성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한번의 녹음으로 QT,칼럼, 오디오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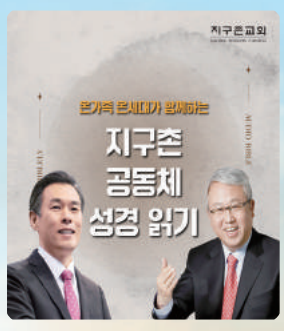
목사님의 음성 모델이 만들어지면,
오디오 성경뿐 아니라
목사님과 전 교인을 위한 QT, 칼럼,
오디오북까지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바이블리 **'AI 오디오 성경'**은
친근한 목회자 및 가족의 음성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하용조, 이재훈 목사님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등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경 읽기 및
말씀 전파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바이블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기독일보
www.chdaily.com
T : (213)739-0403 chdailyl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현장영상예배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어와나(AWANA) 주일 오후 2: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비전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전 11:15
사랑부 오전 8:45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세계 CCTV의 54%가 中에… 타국 신앙인들도 감시

베이징에 거주 중인 이안 라히프(34) 씨의 아파트 문 밖에 설치된 CCTV. ⓒCNN 보도화면 캡쳐

오픈도어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는 최근 '중국의 디지털 감시'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 세계 CCTV 카메라의 54%가 중국에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뿐 아니라 타국의 신앙인들까지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칼럼에서 오픈도어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들(중국 정부)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본 것, 온라인에서 검색한 것,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시간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움직임은 거리의 카메라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감시되고 있다"고 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염탐 문제는 최근 영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영국의 한 의회 연구원이 중국을 위한 간첩 혐의로 체포돼 보석금을 낸 것이다. 오픈도어 옹호 담당 이사인 가레스 월리스는 "타국민에 대한 것이든 자국민에 대한 것이든 감시는 중국 공산당(CCP)의 거의 제2의 천성이며, 중국 생활의 일부"라고 폭로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시받는 도시 10곳 중 9곳은 중국에 있다. 한 도시에는 주민 1천 명당 거의 120대의 카메라가 있다.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이러한 CCTV 카메라 중 다수는 시내 중심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들은 얼굴, 인종 심지어 누군가의 정신적·감정적 상태까지 식별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시민은 모바일 장치와 코로나19 추적기와 같은 국가 관리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되고 있다고.

오픈도어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 밍이 성경을 배포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처벌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밍은 "나는 체포되거나 심문을 받고 심지어 투옥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포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밍은 자신의 활동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는 숨겨진 골목에 자신의 차를 두고, 성경을 싣고 연락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암호를 전달한다. 그는 시민들의 전화가 감시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밍과 그의 친구들이 체포됐다. 그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밍과 동료 신자들이 밀수를 은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오픈도어 파트너인 양양은 "밍과 같은 용기 있는 신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확실히 더 많은 제한과 도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스코틀랜드, '전환 치료 금지법' 도입 연기

ⓒUnsplash/Tim Mossholder

스코틀랜드에서 소위 '전환 치료 금지법' 도입이 연기됐다. 자녀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부모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전환 치료 금지에 관한 법안은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협의로 대체됐다. 내년까지는 소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 대변인은 "전환 치료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부 제안을 포함한 공개 협의가 올해 말까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법안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우리가 전환 관행을 법률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중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성별을 바꾸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욕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로 도입이 연기되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모, 교사, 의사,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소위 '전환 관행'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의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은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받아들일 의향이 거의 없으며, 영국 보건서비스(NHS) 대기 시간, 인플레이션 및 경제와 같은 다른 이슈들을 훨씬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 매터스'(Sex Matters)의 헬렌 조이스(Helen Joyce) 이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의 전환 치료 금지 연기를 환영하며 "법이 성별 불쾌감에 대한 신중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해롭고 불필요한 법안을 연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공개 협의는 증거를 기반을 한 젠더 케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종교 자유 완전 회복” … 미 대선 후보 드산티스 공약 내걸어

2022년 11월 선거에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연설을 하고 있다. ⓒ론 드산티스 X(구 트위터)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종교 자유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며, 리더십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는 15일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가 주최한 ‘기도, 투표, 굳게 서기 정상회의’(Pray, Vote, Stand Summit)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종교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연설했다.

드산티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에 옳은 일을 옹호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당신은 반발에 직면하고, 공격을 받게 되며, 비방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거짓말, 속임수, 반대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모욕과 헛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초”라고 덧붙였다. 드산티스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이 나라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기간 동안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사람들의 예배 권리를 박탈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당시 “주류 판매점이나 스트립 클럽은 열려 있었지만, 신앙인들은 문을 닫게 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쇠퇴를 뒤집으려면 미국의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이 부활은 우리의 종교 기관, 직장, 각 가정, 사회의 기반이 되는 모든 기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기도 했다. 드산티스는 “신앙이 문화에서 세속적 관심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국가 유산과 문화에서 유대-기독교의 종교적 상징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 좌파는 정교 분립에 의해 정부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첫째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그들은 종교를 세우고자 하며, 그 종교는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다. 정치적 좌파를 미국의 정식 종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드산티스는 미국의 정식 종교로 정치적 좌파주의를 확립하려는 노력들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좌파] 의제와 충돌하기 직전까지만 (신앙 실천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닉부이치치 “기적 없었지만, 예수님 신실하심 깨달아”

작가이자 ‘닉 V. 미니스트리’(Nick V. Ministries) 설립자인 닉 부이치치(Nick Vujicic·40)가 최근 새로운 영상 ‘아이 앰 세컨드’(I Am 2nd)에 출연했다.

테트라-아멜리아 증후군으로 팔다리 없이 태어났으나 신앙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온 그는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를 주실까 봐 옷장에 신발 한 켤레를 넣어 뒀었다”며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간증했다.

영상에서 그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내가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 그분은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그분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 9분 가량의 영상에서 부이치치는 의료진들이 자신을 처음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세상이 내가 외계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상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면서 “그들은 부모님에게 초음파 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날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결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부이치치는 8세 때 기능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고, 이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그는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계시지 않았다는 뼈아픈 느낌에 빠졌다”며 “매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고, 5년 동안 우울증이 지속됐다. 우울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물에 빠져 익사하려고 시도했다”고 했다. 그는 “난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불공평한 존재일 뿐이라고 여겼다. 난 기적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3세가 되어서야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 하나는 또 다른 신체적 장애 때문에 얻게 됐다. 그 당시 작은 발이 다쳐 걸을 수 없게 됐고, 그 좌절은 평생의 교훈이 됐다. 난 팔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때 분노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언급하며 “군중 속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날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중요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이치치는 78개국에서 3,500회 이상의 연설을 했으며, 이 여정을 통해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이들과 직접 만났고, TV를 통해 28억 명에 달하는 이들과 여정을 공유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해 교회와 콘텐츠 제작자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더빙 및 번역 도구를 개발하고, 기독교인들이 AI를 사용해 복음을 더욱 전파하도록 도왔다. 이 소프트웨어는 영상을 3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자막과 자연스러운 음성 해설을 추가 및 편집해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된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8: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1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분단된 후 대한민국의 건국

강 석 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자 바로 남과 북으로 분단국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승전국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이들의 점령지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패권국가들이었기에 이들 강대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미소 양국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각기 상이한 생각을 가졌다. 소련은 공산주의 팽창을 위해 동유럽에 이어서 아시아권의 나라들도 소련의 지배권 하에 종속시키려 했기에 미국과 카이로회담과 포츠담회담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5년의 신탁 통치 후 남과 북의 선거를 통해 하나된 자주 독립국을 세운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사실상 소련의 스탈린의 의중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로부터 손을 떼고 일본 본토만을 미국의 지배권 하에 두려고 하였으나 소련은 이북 지역을 소비에트화 하려는 속셈을 처음부터 가졌으며 이를 관철시키려고 양국 간의 약속을 져버렸다. 그러하기에 스탈린은 이북 지역이 소련의 지배하에 있도록 신탁을 주장했고, 이남은 자주 독립을 위해 미국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결국은 남북한 동시 총선을 통한 선거는 무산되었고 이남 지역은 1948.8.15.일에 자유 국민 투표를 통해 독립국으로 탄생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북은 소련에 의해 이미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사실상 정부가 성립된 상태였기에 남과 북의 단일 국가 건국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였다.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선거 제도는 북한의 소련식 흑백 선거와는 달리 이남 지역에서는 자국인들이 최초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실행된 것이다.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는 미국의 군정 실시 3년 만의 결실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민주 정부로 승인된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원 198명이 모여 제헌국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이때 임시의장에 선출된 이승만 의장이 갑자기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개회 감사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화로 월남하여 '남산감리교회'를 세운 목사였다. 그는 이같이 기도하였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같이 감동적인 개헌 국회 개회식 기도가 10분 이상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다. 진지한 기도가 끝나자 일제히 기립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되었다.

강태광의 기독교 고전 산책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7서신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코로나 시대에 자가 격리를 하면서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책들을 읽는 축복을 누렸다. 2주간 장기 격리 기간에 영원한 고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등을 읽었다. 이런 고전들을 낑낑대며 읽다가 기독교 고전에 대한 소양이 부족함을 자각했다. 내친김에 검색을 하고 주문을 해서 기독교 고전을 읽었다.

부끄럽게도 목사가 되어 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기독교 고전을 읽기는커녕 관심도 두지 못했다. 인문학 고전들은 뒤적이면서도 신앙의 고전들을 살피지 못했던 것은 목사로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고전을 읽은 정말 감사한 축복이다. 기독교 고전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만, 기독교 고전은 신앙과 기독교 인문학의 보고(寶庫)다. 기독교 고전은 시기적으로는 신약성서 기록 이후 시대(속 사도시대)부터 7세기 혹은 8세기에 이르는 기독교 문서들을 가리킨다. 기독교 고전의 내용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인정하는 신앙 문서다. 당시의 신앙과 교회의 형편 그리고 그 시절 득세했던 이단들의 정보가 담겨 있고 이단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자료다.

기독교 고전을 접하며 가장 먼저 읽은 글이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글들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은 놀라운 정보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그나티우스 목사(감독)의 의연한 모습과 그의 심장이 담겨 있는 글들을 읽으며 그의 용기와 담대함에 부럽고 감사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성도들의 야성과 열정도 부러웠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다.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로 베드로의 임명으로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목회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온 교회사를 통하여 매우 귀중한 신앙의 증언을 남겼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직접적인 제자였다고 한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마가복음 9장(마태 18장)에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셨던(머리를 쓰다듬었던) 아이라고 합니다. 2세기 교회 공동체가 이그나티우스를 그만큼 존경하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는 물론 그가 로마로 호송되던 노정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걸출한 지도자였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리스도를 주(主)로서 선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는 곧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되어 안디옥에서 여러 도시를 거쳐 로마로 압송되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끌려가면서 몇 곳에 머물렀다. 그가 머물렀던 서머나와 드로아에서 자신을 방문해 주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서신은 모두 7개인데, 6개의 서신은 수신자가 교회들이다. 6개의 서신의 수신 교회는 에베소, 막네시아, 트랄레스, 로마, 필라델피아, 그리고 서머나 교회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담임 목회자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서신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후배요 사형수가 되어 끌려가는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편지들에서 밝힌 그의 소원대로 로마에서 맹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그의 순교는 당시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폴리갑, 오리겐, 제롬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에서 야수의 밥이 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여러 순교 기록은 거의 유사해서 신뢰성을 준다.

이그나티우스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가 거쳐 간 도시들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그나티우스를 존경하고 더욱 사모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는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구명운동을 강하게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로마교회에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서 그는 구명운동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강청했다.

개인과 교회에 보낸 개인적인 편지들이 회람문서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순교한 후에 그를 특별히 존경하고 사모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폴리갑 감독에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을 필사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폴리갑 감독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들을 전해 주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주변 교회들도 그 편지들을 구하고, 필사본이 보급되어 회람되면서 2세기, 3세기 교회에 중요한 문서로 유통되게 되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편지를 보낸 6개 교회 중 로마 교회를 제외하면 모두 이그나티우스를 찾아와 위문했던 교회들이다. 그는 그 교회들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방문했던 목회자와 성도 대표를 언급하며 칭찬했다. 죽음을 향해 압송되어 가는 신앙인이 보여주는 여유와 담대함이 아름답다.

이그나티우스는 6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의 질서와 하나 됨을 강조했다.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인 집사들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심지어 주교를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라고 권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은 대단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그대로 속사도 교부들에게 이양되었다.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였다. 당시 목회자의 권위나 리더십에 도전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교회 상황을 반영한 이그나티우스는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가르친다.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서신에 이단 문제를 언급했다. 이단에 빠져 순수한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는 길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자기 순교였다. 그는 자신의 순교가 방해받을까 봐 노심초사한다. 고난의 현장에서 찬란히 빛나는 그의 야성이 부럽다. 그의 당당한 순교를 목격했던 서머나 감독 폴리갑도 곧 순교자가 되었다.

2023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캠퍼스 수업
■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
■ 실시간 화상수업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사회복지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집중과정, 목회학 크리스챤과정, 상담심리학, 선교학, 결혼가족치료학, 건문코칭학, English M.Div.
■ 박사 | 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Acts Global Church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Angel's 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주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His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오후 12:00 **이현욱**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LA사랑의 동산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 새벽 6:00(월-토)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LA하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박지상**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Metanoia Church of Southbay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New Start Community Church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Only One Church
주일예배 오전 10:00 **장경호** 담임목사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The Well Church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주일 1부 오전 8:00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In Christ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상현** 담임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7:00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남가주늘사랑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남가주예수사랑교회
주일예배 오전 10:00 **오상규** 담임목사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구 오후 7:30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남가주은혜선교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창곤**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놀웍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차권희** 담임목사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늘새론교회
주일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청년부예배 오전 9:30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더섬기는교회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영일** 담임목사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랜초한인교회
주일예배 낮 12:00 **정용암** 담임목사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로고스라이프교회
주일예배 오후 2:00 **신용석** 담임목사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7:30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리뉴얼새힘교회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말씀위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 (수)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방주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서민수** 담임목사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버몬한인교회
주일예배 오후12:00 **장현석**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브림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윤 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생명과사랑의교회
주일예배 오후 2:00 **신현우**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생명의길교회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선민교회
주일예배 오후 2:00 **장동훈** 담임목사
새벽예배 오전 6:00 (토요)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섬김의교회
주일예배 오후 1:00 **임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성암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요한** 담임목사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철야기도 오후9: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예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 **정찬군** 담임목사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원웨이침례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김지언** 담임목사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601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은혜가샘솟는교회
주일예배 오후 12:00 **최주철**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은혜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님의숲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류연주**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백성교회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김성규**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초대교회
주일예배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카마리오열방교회
주일예배 오후 1:00 **권혁래**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0:30 **조 인** 담임목사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커넥션교회
주일예배 오후 2:00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용근** 담임목사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크로스교회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1:00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하늘기쁨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오충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중예배 목요 오후 8:00(한어) / 금요 오후 8:00 (영어)
피워워십 2번째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 오후 8:00 (한어)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주일예배 오전 10:30 **양국민** 담임목사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Global United Church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213)221-9147 yohan72@gmail.com

굿프렌즈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양홍규** 담임목사
기도회(주일) 오후 3:00
5721 Lincoi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조용히 승리하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승리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승리하게 되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승리가 주는 혜택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한 나라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고, 무엇을 위한 승리이며,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슬픈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패배와 승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통해 승리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도 패배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도 모험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 성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실패를 가능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패 때문에 너무 낙심해도 안 됩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실패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라는 뜻입니다. 실패란 다른 생각, 다른 표현, 다른 태도, 다른 관점, 다른 방법, 그리고 다른 시스템으로 시도해 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패란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도하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은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 때문에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실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실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실패를 극복함으로 주어집니다. 실패를 잘 극복하면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아끼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험도 했습니다.

승리의 지혜 가운데 조용히 승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연기와 기침을 감출 수 없듯이 승리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란하게 과장하는 승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속 없는 승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리 후에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을 만납니다. 승리 후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암탉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영리하다. 그들은 알을 낳고 난 뒤에야 비로소 꼬끼오 하고 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신중함에 있습니다.

조용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절제란 어떤 일을 실제보다 조금 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술의 아름다움은 절제에 있습니다.

조용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한 번의 승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승리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 승리를 위해 힘을 아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작은 승리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승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힘을 절제하고 힘을 비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다 죽는 사람보다 내려오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등산은 정상을 정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잘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등산가는 내려오는 힘을 비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는 절약입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절약은 관대한 베풂을 위해 전략적으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칠년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제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있습니다. 절제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절제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의 지혜는 정기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앙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새 힘을 공급 받게 됩니다(사 43:10). 예수님의 승리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가 기뻐하는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롬 8:37). 조용한 승리를 통해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길 빕니다.

구봉주 칼럼

전도와 선교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저는 매년 전도와 선교에 관한 칼럼을 두 어 번 정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라며, 성도님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하는 방법과 가능성을 말씀드려서, 동기부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터키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난민과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성지순례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는 한 아프카니스탄 가정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마침 세례식을 하기로 한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 식구나 되는 가정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이름들을 다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도는 직접 부딪쳐 보고, 선교는 직접 가보고 만나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니, 기억이 나고, 마음이 가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가장, 유누스는 정이 넘치는 60대 가장이었고, 아내 굴숨은 수줍음이 많은 50대 여인이었고, 큰 딸 파르조나는 집안 전체를 전도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파르조나와 아흐맛 부부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아흐맛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솔깃해 진 아흐맛이 아내 파르조나에게 전도받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 파르조나가 남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무렵, 자신의 삼촌 뻘, 친척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척은 이미 터키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믿을 만한 친척이 전도하는 바람에 파르조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여, 파로조나에게 어떻게 조상 때부터, 알라신을 섬겨온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평소에는 몰랐는데, 터키 땅에 나와, 자신이 믿던 이슬람교는 신의 존재도 구원도 모호한데, 성경을 읽으니,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구원도 너무나 구체적인 것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알라와 달리, 터키 땅에서 놀라운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듣고, 세례식을 진행했는데, 세례식은 말할 수 없이 은혜로웠습니다. 파르조나는 연신 눈시울을 붉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어디 터키 아프카니스탄 난민들뿐입니까? 최근에 30기 알파코스를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고, 지금 아내와 자녀도 모두 절에 매주 갈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들이신데, 자신은 불교에 진리가 없음을 알고, 80대가 되어서야 수년 동안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 끝에 감사한인교회로 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날, 설교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우셨고,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파르조나와 80대 되신 선생님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작고 수줍은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위로할 때, "교회 한 번 와 보세요"라고 초청할 때, 그저 자신이 기독교임을 알리고, 선행을 하기만 해도, 전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지니스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기독샵
www. Kidokshop.com
scan me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 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캄캄할 때 더욱 빛나는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회는 역경과 고난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형광등을 봐도 환한 대낮에는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어두움이 짙어지며 온통 캄캄해지면 형광등의 빛이 환하게 켜져 있음을 다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역경이 생기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 왕과 장수들이 다 두려워 떠는 골리앗이 나타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없었다면,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 앞에 증거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로 인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위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기에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는 까닭도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역경 앞에서도 믿음을 증거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빛나는 믿음도 쉽고 평탄한 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역경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이와 강력함, 진실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환경과 조건을 편하게 바꾸려고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나 역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기회가 되어 질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기꺼이 힘든 여정을 감당했던 브라질 집회 선교는 바로 그런 믿음을 체험하고 증거 하는 일이었습니다. 볼리비아 이소소 성전헌당예배 선교 팀도 월요일 새벽 2시 비행기로 출발하여 파나마에서의 사역 후 싼타꾸르스에 가서 인디안 촌까지 왕복 14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힘든 사역을 통해 더욱 빛나는 믿음을 증거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주간 성경암송대회에 참석한 분들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간 추모 2주기를 맞이하는 영산 조용기 목사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직후 폐결핵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성령을 체험한 목사님은 한 평생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지구를 120바퀴 이상을 도는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샬롬!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이 기쁜 소식을 "O Spread the Tidings Round"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필자가 중고등학생 시절인 1970-80년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가 중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원문 한 절을 나열합니다. Oh, spread the tidings round, wherever man is found, 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 Wherever human hearts and human woes abound;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아픔이 가득한 곳 어디든 Let every Christian tongue proclaim the joyful sound: 모든 그리스도인의 혀가 즐거운 소리를 선포하게 하라. The Comforter has come! 위로자(보혜사 성령)가 오셨다!

이 찬송은 프란시스 보토메 (Francis Bottome1823-1894)가 작시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를 가지고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윌리엄 컬크페트릭 (William J. Kirkpatrick 1838-1921)이 곡을 붙여 1890년 찬송가집 "Precious Hymns for Times of Refreshing and Revival"에 이 곡의 가사 첫 부분을 딴 "O Spread the Tidings Round" 제목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역 찬송 집에 처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제목은 "The comforter has come"입니다.

프란시스 보토메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1850년 미국의 성공회 감리교 (Episcopal Methodist) 목사가 되어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주로 찬송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미국의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의 중간기로 당시에 크고 작은 부흥 집회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 68곡의 찬송시를 남겼던 위대한 찬송 작가였습니다.

보토메 목사님의 찬송 시 "이 기쁜 소식을 (O Spread The Tidings Round)"은 요한복음 4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소재로 삼아 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느냐는 질문(요 4:22)에 주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사건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던 필자의 시간 정점을 다시 1970-80년대로 되돌려 보려 합니다. 당시 부흥회 때 이 찬송을 인도하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님들이 찬양했던 모습들을 주마등처럼 필자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강대상을 마치 큰 북 삼아 손을 힘차게 내리치며 연신 외쳐대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 이에 맞장구를 치며 마치 고성에 가까운 듯 큰 소리로 외쳐대는 "성령이 오셨네 ~~~. 이 뜨거운 열기가 그때는 왠지 시끄럽게만 느껴졌는데 오늘날은 그 함성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순간들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그것이 고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존 파이퍼(John Stephen Piper, 1946 -)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께 굶주린 삶 (A Hunger for God)' 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 두렵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밀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현실과 타협하며 부스러기, 찌꺼기들로 가득 배를 채우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맛을 잃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깊은 돌이킴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의 유서에서 " 내가 나병환자와 입 맞출 때 전에는 구역질나던 것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회심"의 순간이었고 "세상을 떠난"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리처드 로어 (Richard Rohr, 1943 -)는 "그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의 모자람을 제대로 맛보고 전과 다른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긷기 시작한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고전적 그리스도교의성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C. S. 루이스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 (The Weightof Glory)' 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수탁은 울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명과 정체성을 바로알고 지키며, 바른 예배자로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우리의 예배와 일상에서 불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함을 갖고 열심히찬양하므로 깊은 영성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 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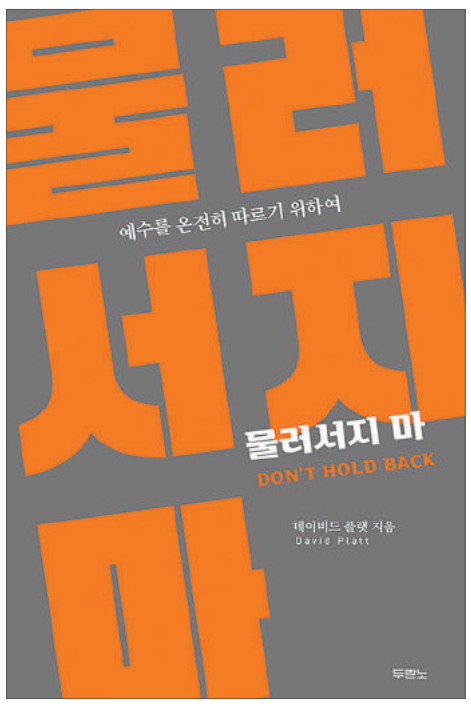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 2등 아이패드 |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절대 물러서지 말고, 복음 위해 전진하라]

데이비드 플랫, <래디컬> 성공과 함께 시작된 위기



물러서지 마

데이비드 플랫 | 정성묵 역 | 두란노 | 268쪽
16,000원

"성공 신화가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나의 안위를 위한 거짓 복음이 문제였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서,
예수로 용납하는 것에서
예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예수의 정의를 위한 것에서,
예수 복음 전 파를 위한 것에서,
예수의 복음을 살아 내는 것에서,
물 러 서 지 말 라

충격이었다. 〈래디컬〉 저자이자 앨라배마주 브룩힐즈교회(2006-2014), 그리고 워싱턴 D. C. 맥린바이블교회(2014-) 담임목사이자 국제 복음선교센터 '래디컬'을 설립한 데이비드 플랫이 자신의 영적 위기가 래디컬의 성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획기적인 돌이킴과 철저한 헌신을 부르짖은 플랫 목사는 오히려 그 메시지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자신을 여기저기서 초청할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누리는 데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역에 파묻혔다. 인지도는 올라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복음이 제공하는 영생, 곧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하고 풍성한 사귐은 점점 메말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한 급진적 삶 자체를 버리고, 유유자적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할까? 아니다. 플랫 목사는 "물러서지 마"라고 말한다(원제: Don't Hold Back).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부모나 형제, 자녀나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는 우선순위, 급진적 정신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삶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8-9).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결의처럼, 플랫 목사는 다시 한 번 래디컬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상기시킨다. 세상에 적절히 묻어가려 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저항하라고 권면한다. 저자는 모든 독자를 광신도로 만들려 하는 게 아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그만큼 진중하고 개혁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릴 뿐이다.

〈래디컬〉을 통해 저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확고하게 정립했다면, 〈물러서지 마〉를 통해 저자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의 연합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안으로 강력하게 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진리를 벗어나 다른 복음을 좇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자진 탈퇴하겠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본질적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저자는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만큼은 영혼을 향한 연민을 품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불의를 발견할 때, 교회는 종종 냉정한 머리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쟁하기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뜨거운 가슴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배고픈 형제자매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요청하신 바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크기와 열정으로 세계 선교에 힘쓸 수는 없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맞다. 자기 교회만 신경 쓰고 돌보지 말고, 성도들의 시각을 넓혀 하나님 마음이 있는 열방으로 주신 자원을 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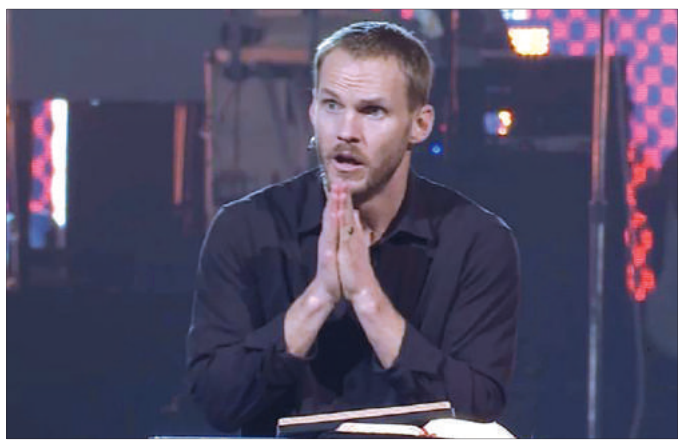
또 저자는 결국 복음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래디컬〉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자신의 현실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복음의 목표,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인 사역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6가지 항목을 소개한다: ①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라 ②아침과 저녁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라 ③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④세상 문화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연민을 보여주라 ⑤정의를 행하라 ⑥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매우 기본적인 실천 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도태된 삶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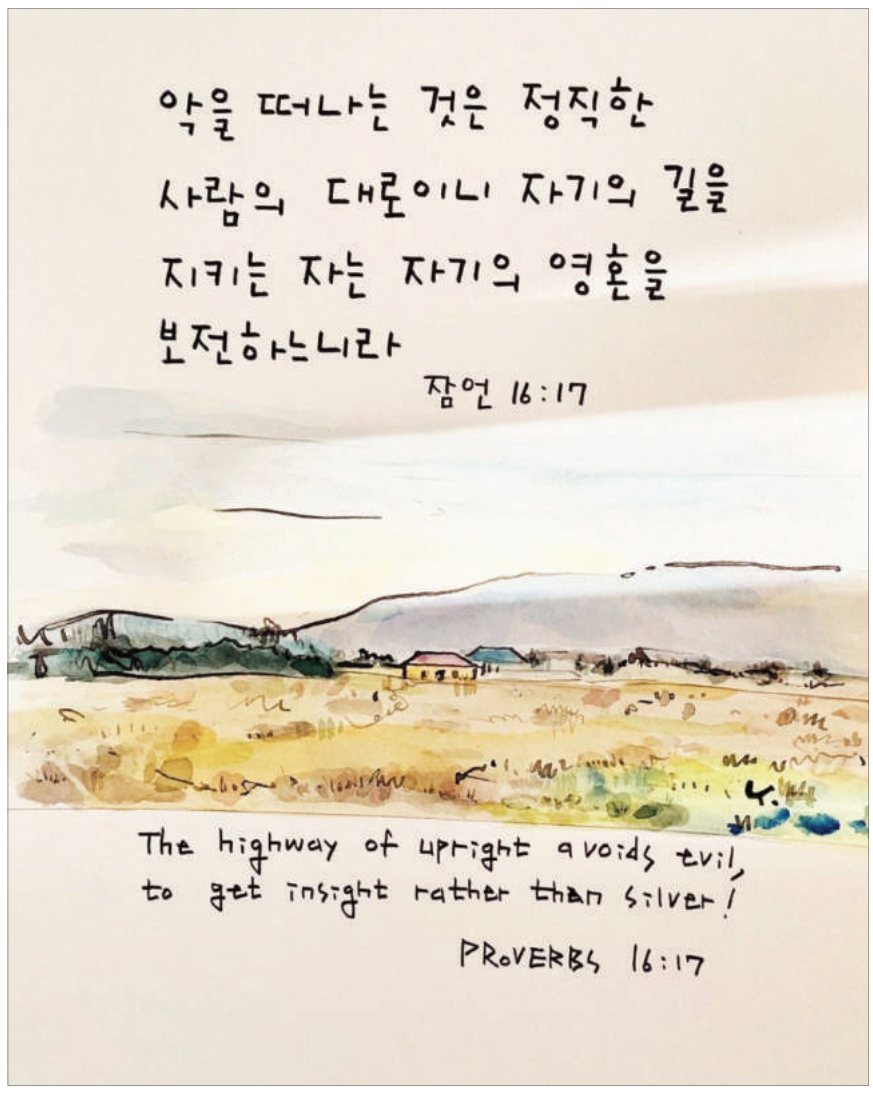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주목받는 기독교에 익숙하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몰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빠진 활동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문화에 잠식되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따르며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교회의 연약함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했다(갈 6:9).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저항하라.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있게 담긴 복음을 선포하라. 여전히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전달할 아름다운 교회의 발에도 복음의 신이 신겨야 한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적 복음에 있다. 그 복음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가 귀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 ⓒ크투 DB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에드워드 호퍼, 〈밤을 지새는 사람들(1942)〉

기독교 관점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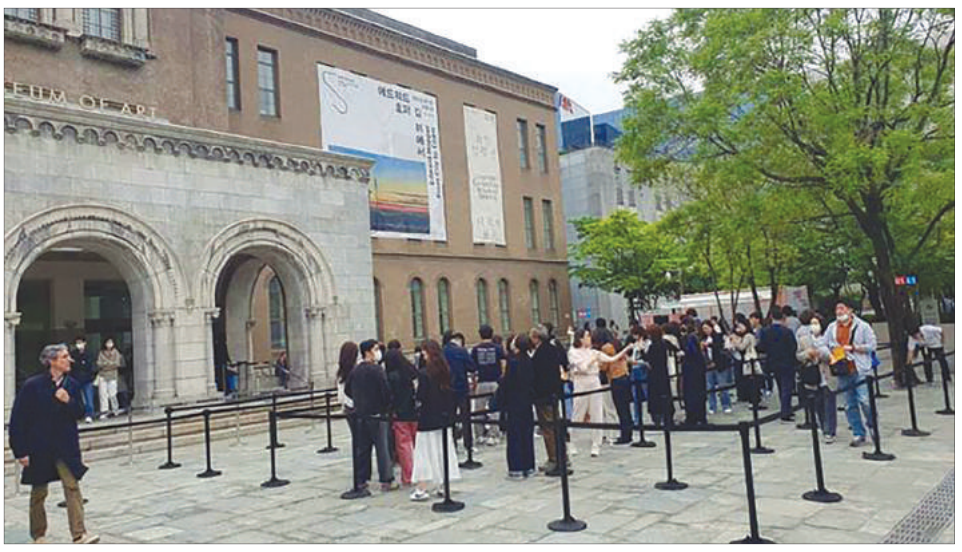
도시의 삶과 고독 표현했지만
'좋은 삶' 향한 비전은 안 보여
알고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 듯
히브리적이라기보단 스토아적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애통해야 하는 이유

에드워드 호퍼, 밤을 지새는 사람들(Nighthawks,1942), 캔버스에 유채, 84.1x152.4cm,1942.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뉴욕을 배경으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풀어낸 작가이다. 그가 거주하던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 인근 식당에서 착안한 것이지만, 이 풍경화는 동네 건물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호퍼가 살았던 20세기 초중반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다. 도시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내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고립과 외로움을 반영하고 있다. 대도시의 모습은 그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다. 심리적인 도시 풍경이랄까, 화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같은 썰렁함, 어둔 밤의 불길함,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기다 강한 조명과 세밀한 디테일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높이며,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밤을 지새는 사람들(Nighthawks,1942)〉이다. 도심의 식당 풍경을 모티브로 한 그림의 공간은 스냅사진처럼 인물의 동작을 포착하여 움직임이 멈춘 것같은 상태로 제시된다.


에드워드 호퍼전(4.20- 8.20)이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서성록 교수

식당 전면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마치 밀폐 용기처럼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곳의 강렬한 조명과는 대조적으로 바깥의 거리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다. 중절모를 쓰고 앉아 있는 남성이 나타내는 고독은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한 쌍의 커플에 비해 더욱 배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커플의 모습도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 않다. 여인은 손에 든 쪽지를 신경쓰고 있고, 남성은 뭔가 수심에 잠긴 듯 담배를 피우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깊은 밤에 술집에 모인 인물상을 통해, 호퍼가 말한 '대도시에서의 고독'을 표상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퍼가 대공황과 전쟁을 겪으면서 절망과 소외 경험을 다룬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한다. 포스트 허쉬(Foster Hirsh)는 〈진홍의 거리〉를 거론하며 "인적 없는 거리,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무시무시한 파수병과 같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각진 건물들은 호퍼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기분이 묘하게 으스스한 밤의 도시풍경을 연상시킨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윌리엄 와일러의 〈출입금지〉, 로버트 사오드막의 〈킬러〉와의 유사성이 종종 지적되곤 한다. 이 같이 호퍼는 주제적·형식적 측면에서 '필름 느와르'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화면이 영화 스틸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호퍼는 도시인들의 삶을 통해 현대인의 고민과 고독을 꿰뚫어보았다. 현대인들은 도시에 정주하면서도 정작 도시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거대도시 속 신기루에 둘러싸인 조각난 삶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그의 작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장은 고요함과 정숙함, 깔끔함 속에 숨겨져 있다. 안정되고 세련된 건물과 불빛은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현실의 딜레마는 초연한 것처럼 다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호퍼가 그림을 제작할 때 '아파테이아(apatheia)'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파테이아란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정념에서 해방된 또는 초월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관심(apathy)'과도 일맥상통한다. '아파테이아'는 누구나 상상하는 것 이상의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개의치 말아야 할 장애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만일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끼어들 경우 그것에 대해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본인은 그렇다 치고, 가족과 지인이 곤경에 빠질 경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할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파테이아와 인식론적으로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른 용어가 라틴어 '파티(pati)'이다. 이 용어에서 파토스(pathos), 공감(emathy), 동정(sympathy), 열정(passion), 긍휼(compassion)과 같은 말이 파생되었는데, 여기서는 인생을 살면서 동반되는 고충과 슬픔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도움이 되거나 해결이 가능한데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개입할 수 없는 것과 알고 있기에 개입하는 것과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

호퍼는 일상의 현실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렇기에 인물들의 표정을 알 수 없게 처리해버렸다. 그림을 보아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시선의 마주침도, 대화도 끊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자세를 취할 따름이다.

그의 작품에 흐르는 아파테이아적 요소는 호퍼가 세상을 관찰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뿐, 삶의 고락을 나누는 동반자 즉 나의 이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호퍼가 취하는 아파테이아는 의도적인 방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좋은 삶'을 향한 비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히브리 학자 아브라함 J. 헤셸(Abraham J. Heschel)은 『선지자들(The Prophets)』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전통이 그 시대의 스토아주의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의견을 펼친다. 헤셸은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형성된 적극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본 것에 대해 느낄 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헤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도 행동치 않고, 알고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애통히 여겼다고 지적한다. 헤셸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히브리적이라기보다는 스토아적이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호퍼의 그림을 말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보며 적막과 고요함을 느낀다. 그림 속 인물들은 타인과 단절된 채 종종 먼 곳을 응시하거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주변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이 도시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발견'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그림이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잃은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그의 작품은 쳇바퀴 돌듯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즉 '좋은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처럼, 호퍼의 도시는 분리와 단절,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표백된 것과 같은 창백한 정서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짠하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은 감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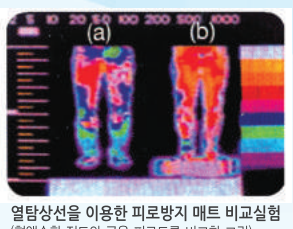
맨프레드 바이런 경(Manfred Bryron)의 시구, 즉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애통해해야 한다"는 말은 그에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피로방지 매트

70%이상 피로 감소,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충격흡수, 관절보호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열탐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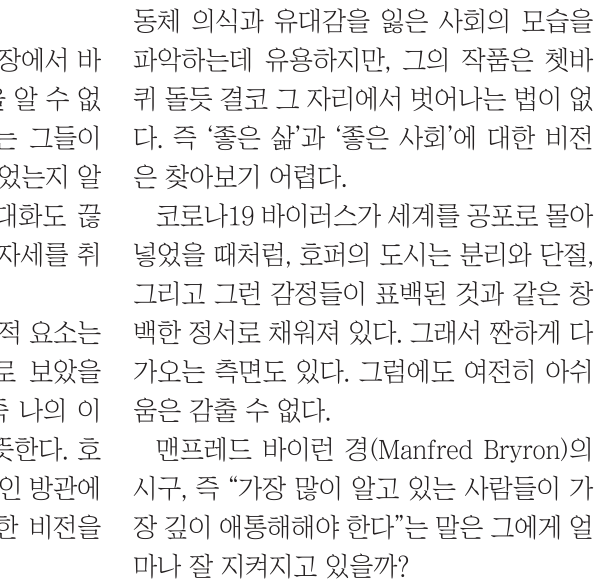
E-MAT

블랙
36.5X 25 inch
~~$176~~ $8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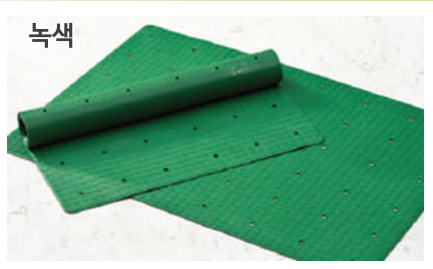
목사님!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미끄럼 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NEW SUPER SAFE MAT


녹색
36.5 X 24.5 inch
~~$100~~ $50 +Tax

SUPER SAFE MAT

파랑
대 35.5 X 23.5 inch ~~$100~~ $50 +Tax
소 31.5 X 15.75 inch ~~$80~~ $40 +Tax

구입문의 기독샵 (213)434-1170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각상각: 최대 80%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사용자 Outlet Free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